

Busan science high school

2023 Ocean ICT Festival **2023 BOIF**

B QR 코드 영역 QR 삽입 후 테두리 삭제

Youtube 영상 QR

주제명:온도/염분자료 분석을 통한 '산소부족 물덩어리'의 생성빈도예측

팀명: 2107 강상혁, 2108 강훈민 ● 산소부족 물 덩어리 란?

바닷물에 녹아 있는 산소농도가 3mg/L 이하인 물덩어리로, 어패류의 호흡활동이 저해되어 피해를 유발한다.

산소부족 물 덩어리는 산소농도, 즉 용존산소량과 연관이 있기때문에 이 데이터를 찾 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용존산소량을 지역별로 측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존산소량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해양 데이터를 찾는데 집 중했다. 이를 위해 수온, 염분, 밀도 등 다양한 연관성을 찾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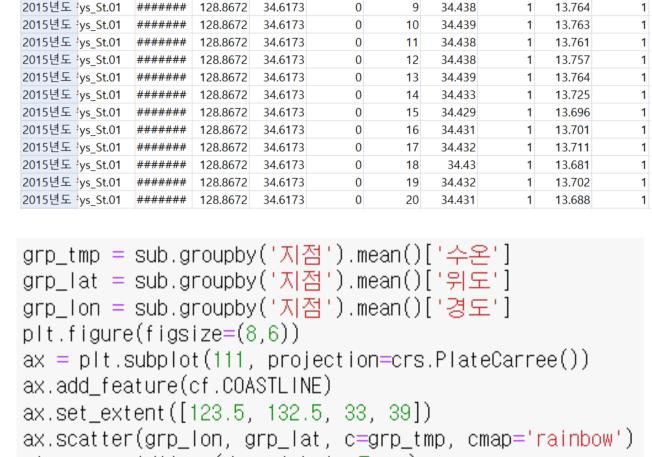
이 데이터로 전국 표층수온 시각화 하기

13.762

13.759

34.438

34.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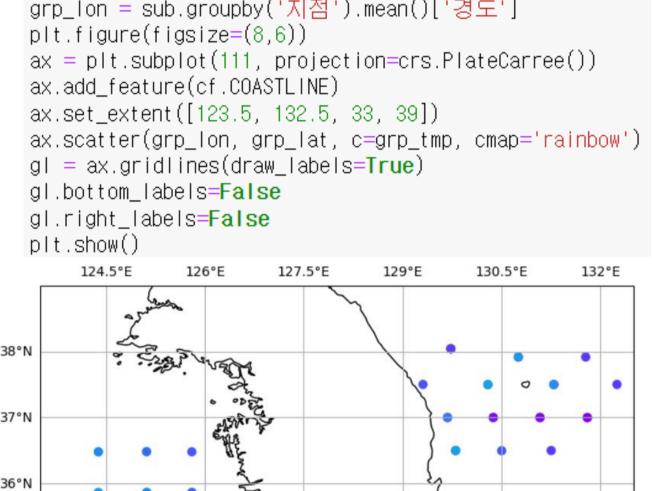


2015년도 'vs St.01 ###### 128.8672 34.6173

2015년도 ⁻ys_St.01

35°N

관할 해양정보 활용시스템에서 제공된 자료에 따 라, 2015년의 수심 0m ~ 90m의 염분/수온 정보 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전국의 표 층 수온을 시각화하는 그림을 그려보았다.



그룹화 하였고, 각각 수온, 위도, 경도의 평균을 계 산, 저장하였다. 그리고 크기가 8x6인 그림을 생 성한 뒤, 대한민국 지도를 통해 각 지점별 수온 데 이터를 색상을 부여해 나타냈다.

왼쪽 코드와 같이 sub 데이터 프레임을 지점별로

이를 통해 시각화한 대한민국의 표층 수온 평균은 다음과 같았다.

산소부족 물 덩어리의 발생 원인 :

하층부 용존 산소량 부족이 직접적 원인이다.

그러나 해수의 용존산소량 데이터는 전국의 모든 관측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아 니며, 전국 해역의 용존산소량 데이터는 오직 1년에 4번 실시하는 정기조사에서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산소부족 물덩어리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 연속적인 변화를 가진 수치 가 필요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용존산소량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 모든 관측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는 표층 수온을 이용하기로 했다.

먼저 정기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해 표층 수온과 용존산소량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해양화경측정망 정보를 이용하였다. 전국연안 425개 정점 에서 실시되었으며, 총 32446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층 수온과 표층 용존산소량, 표층 수온과 저층 용존산소량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서 sklearn을 사용하였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를 이용해 전국 해역의 표층 수온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데이터로 추세선을 그려 미래 표층 수온의 변화 양상을 예측했다. 추세선을 그리는 데에는 plotly와 statemodel을 활용하였다.

Irmodel=LinearReg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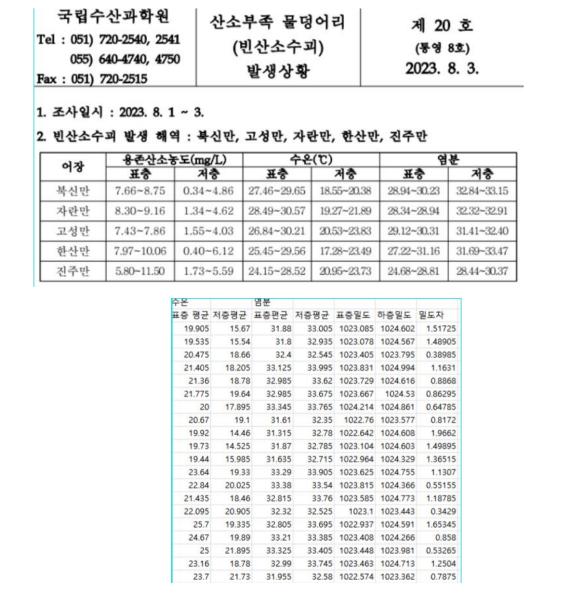
Irmodel.fit(x_train,y_train) predicted_y_train=lrmodel.predict(x_train) mse_train=mean_squared_error(y_train,predicted_y_train) print("MSE on train data: %f"%mse_train) predicted y test=Irmodel.predict(x test) mse_test=mean_squared_error(y_test,predicted_y_test) print("MSE on train data: %f"%mse test) r2_train = r2_score(y_train, predicted_y_train) r2_test = r2_score(y_test, predicted_y_test) print("train의 결정계수:%f"%r2_train) print("test의 결정계수:%f"%r2_test)

O 해결방안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앞서 계획했던 산소부족 물 덩어리의 생성 예측의 실패로 인해 다른 방법을 더 생각 해 보게 되었다. 검색에 의한 결과,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또한 물의 상하층의 큰 밀도차에 의한 하층

의 용존산소량 부족 또한 큰 문제이다. 따라서 앞서 발생했던 산소부족 물덩어리 자 료를 통해 어느 정도의 밀도차가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이어지는지 탐구해보았다.



국립 수산 과학원의 자료원에서 산소부족 물 덩어리 관한 기록을 정리하여 , 산소 부족 물 덩어리가 발생하 기 위한 최소의 밀도차를 계산해 보았다. 올해 국내에 서 발생한 산소부족 물덩어리 중 , 하층의 밀도차가 가 강 작았을 때는 밀도차의 최솟값은 0.3429 의 밀도차를 가졌기 때문에 , 이 수치 이상의 밀도차에선 산소부족 물 덩어리가 생길 것이라 예측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성을 예측해내진 못하지만, 이전의

자료를 이용해 이전에 발생했던 여러 어업피해들의 원 인을 밝히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산소부족 물 덩어리의 예측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 탐구해보았 으나 생각처럼 간단한 연구가 아니라 다양한 여러 요소를 생각해 진행해야하는 연구 임을 느꼈다. 탐구 결과 가장 가중치가 높은 요소는 상층부와 하층부의 밀도차에 의 한 밀도약층의 발생임을 알 수 있었으나 전국 해수의 밀도 차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 가 많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